

「그대, 바람 속에 君, 風の中に」挿入曲

석양 — 그대 떠난 땅에

夕陽 — 君去りし地に

♩=120

Em D7 G6 D7
그 대가 말 없 이 떠 나 버 린

C6 G F#7 B7
땅 에 홀 로 서 서 나 는

Em D7 G6 D7
내 맘 을 감 싸 던 따 스 함 이

C6 Em F#7 B7
금 빛 조각 되어 허 공 에 흩 어 져

Em G B7 F#7
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

B7 F#7 A7(b9) B7
지나가지 못하고 머무는 슬픔

Em D7 CM7 G
그 대가 없 음 을 아 프 리 만

F#7 Am7(b5) B7 Em
침 지는 석양이 가르쳐 주 어

석양 — 그대 떠난 땅에

チャクサ チャツコク チョ ス ア
작사・작곡: 조수아
作詞・作曲: チョ・スア

[1]

[ク デ ガ マーロフ シ ト ナ ボ リン タン エ]
그대가 말없이 떠나 버린 땅에
君がことばもなく去りし地に

[ホル ロ ソ ソ ナ ムン]
홀로 서서 나는
一人立ち 私は

[ネ マ ム ル カ ム サ ドン タ ス ハ ミ]
내 맘을 감싸던 따스함이
私の心を包んでくれた暖かさが

[ク ム ビ ッ チョ ガ ク ト エ オ ホ ゴ ン エ フ ト ジョ]
금빛 조각 되어 허공에 흩어져
金色のかげらとなり 虚空に散り

[ク ア ゴ ム ン チ ナ ガ ン シ ガ ニ ア ニ ラ]
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
過去は過ぎ去った時間ではなく

[チ ナ ガ ジ モ タ ゴ]
지나가지 못하고
過ぎ去ることもできずに

[モ ム ム ン ス ル ブ ム]
머무는 슬픔
留まる悲しみ

[ク デ ガ オ フ ス ム ル ア ブ リ マ ン ク ム]
그대가 없음을 아프리만큼
君がなきを 痛いほどに

[チ ム ン ソ ギ ャ ン イ カ ル チョ ジュ オ]
지는 석양이 가르쳐 주어
沈む夕陽が教えてくれて

[2]

[ク デ ワ マ ン ナ ソ ハ ム ケ チ ネ ン タ ン ウ ル]
그대와 만나서 함께 지낸 땅을
君と出会い共に過ごした地に

[ホル ロ マ ン ジョ ナ ム ン]
홀로 만져 나는
一人触れ 私は

[ナ ム キョ ジ ン エ ソ カ ン キ オ ク ト ウ リ]
남겨진 애석한 기억들이
残された哀惜の記憶たちが

[ハ ヨ モ ム ム ン ス ル ブ ム ド エ オ ソ ダ ジョ]
하염없는 슬픔 되어 쏟아져
とめどなき悲しみとなり 溢れ

[ソ ギ ャ ン ウ ン サ ラ メ ス ル ブ ム ロ タ オ ル ラ]
석양은 사람의 슬픔으로 타올라
夕陽は人の悲しみとなって燃え

[ハ ヤ ン タ ル ン サ ラ 메]
하얀 달은 사람의
白き月は人の

[ク リ ウ ム ロ バ レ オ]
그리움으로 바래어
恋しさとなって消えゆき

[ク レ ド ボ ゴ シ ボ 보 고 시 보 소]
그래도 보고 싶어 보고 싶어서
それでも会いたく、会いたくて

[ク デ ス ム キョ ル ン ア ス ラ ハ ヨ]
그대 숨결은 아스라하여
君の吐息はかすかに

「그대, 바람 속에 君, 風の中に」挿入歌

Swinging 한글

작사, 작곡 : 조수아 (Cho Su-a)

♩ = 104 C7 Dm7 F7

그대 손 가 락 이 한글 쓰는 밤 엔 내 마음 한 구 석 이

A7 C7 Dm7

짜 릇 짜 릇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

F7 C7 C6

내 마음 두 등 실 두 근 두 근 아 야 아 야

E7 Fmaj7 G7 C7

어 여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그 대 손 가 락 이

Dm7 F7 C7

한 글 쓰 면 나 는 어 느 덧 나 도 몰 래 를 루 랄 라

Swinging 한글

チャクサ チャッコク チョ スア
[tʃak²sa tʃa²ko² tʃo sua]
작사 작곡 : 조 수아
작詞 作曲 チョ・スア

[1]

[クデ ソンカラギ ハングル 스문 파멘]
[kuɔde son²karagi hangul ²sunum pamen]
그대 손가락이 한글 쓰는 밤엔
君の 指が ハング를書く 夜は

[네 마움 한그소기 차리썬차리썬]
[ne maum hangusogi ²tʃari²²tʃari]
내 마음 한구석이 짜릿짜릿
ぼくの心の 片隅が キュン

[카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]
[kana da ra ma ba sa a dʒa tʃa k'a t'a p'a ha]
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
カ ナ ダ ラ マ バ サ ア ジャ チャ カ タ パ ハ

[네 마움 토투드실 토투드드글]
[ne maum tudunʃil tugundugum]
내 마음 두둥실 두근두근
ぼくの気持ち ふんわり ドッキドキ

[아야 아야 오요 오요]
[aja aja ojo ojo]
아야 아야 어여 어여
アヤ アヤ オヨ オヨ

[오요 우유 와이]
[o jo u ju wi]
오요 우유 으이
オヨ ウユ ウイ

[ク데 송카라기 한글 스미썬 나문]
[kuɔde son²karagi hangul ²sumjon nanum]
그대 손가락이 한글 쓰면 나는
君の 指が ハング를書けば ぼくは

[오누세 나드 몰레 룰룰랄라]
[onuse nado molle rulluralla]
어느새 나도 몰래 룰룰랄라
いつしか 知らぬ間に ルンルン

- 손가락 指
- 이 ...가
- 쓰는書く, 쓰다(書く)의連体形
- 밤 夜
- 엔 = -에는 ...には
- 내 ぼくの, 私の
- 한구석 片隅
- 쓰면書けば, 쓰다書く, -면 ...すれば
- 나 ぼく, 私
- 는 ...は
- 어느새 いつの間にか
- 나도 몰래 ぼくも知らないうちに, 自分でもわからず

[2]

[ク데 나와 햄케 한글 린문 아침]
[kuɔde nawa ham²ke hangul ignum aʃim]
그대 나와 함께 한글 읽는 아침
君 ぼくと 共に ハング를読む 朝

[헷살레 삼크맘 사뽀문사뽀문]
[he²sare sang²hum(h)ami sa²punsap²pun]
햇살의 상큼함이 사뽀문사뽀문
日の光の さわやかさが そっとそっと

[카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]
[kana da ra ma ba sa a dʒa tʃa k'a t'a p'a ha]
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
カ ナ ダ ラ マ バ サ ア ジャ チャ カ タ パ ハ

[네 마움 토투드실 토투드드글]
[ne maum tudunʃil tugundugum]
내 마음 두둥실 두근두근
ぼくの気持ち ほんわか ドッキドキ

[아야 아야 오요 오요]
[aja aja ojo ojo]
아야 아야 어여 어여
アヤ アヤ オヨ オヨ

[오요 우유 와이]
[o jo u ju wi]
오요 우유 으이
オヨ ウユ ウイ

[스름뭇 한 방울이 한글 린문 하늘]
[sulpm²um han banguri hangul rumnum hantul]
슬픔 한 방울이 한글 읽는 하늘
悲しみの ひとしずくが ハング를読む 空

[쿨미 세기요 주문 사라 사랑]
[kurumi segyo dʒumun saraj saraj]
구름이 새겨 주는 사랑 사랑
雲が 刻んでくれる 愛 愛

- 와 ...と
- 함께 共に
- 읽는 읽다(読む)の連体形
- 아침 朝
- 햇살 日の光
- 의 ...の
- 상큼함 さわやかさ
- 사뽀문 そっと
- 슬픔 悲しみ
- 한 ひとつの
- 방울 しずく
- 읽는 읽다(読む)の連体形
- 구름 雲
- 새겨 刻んで, 辞書形は 새기다(刻む, 掘る)
- 주는 주다(くれる)の連体形

Swinging 한글

チャクサ チャツコク チョ スア
[tʃak²sa tʃa^{kʲ}ko^k tʃo sua]
작사 작곡 : 조 수아
作詞 作曲 チョ・スア

[1]

[クデ ソンカラギ ハングル スヌン パメン]
[ku²de son²karagi hangul ²su^{nun} pamen]
그대 손가락이 한글 쓰는 밤엔
君の 指が ハングルの書く 夜は

[네 마움 한그소기 차리츄차리츄]
[ne maum hangusogi ²tʃari²tʃari²]
내 마음 한구석이 짜릿짜릿
ぼくの心の 片隅が キュン

[カナダ라마바사 아ジャチャカタパハ]
[kana da ra ma ba sa a dʒa tʃa kʰa tʰa pʰa ha]
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
カ ナ ダ ラ マ バ サ ア ジャ チャ カ タ パ ハ

[네 마움 툴두운실 툴그드그운]
[ne maum tuduⁿsil tug^unduguⁿ]
내 마음 두둥실 두근두근
ぼくの気持ち ふんわり ドッキドキ

[아야 아야 오요 오요]
[a ja a ja o jo o jo]
아야 아야 어여 어여
アヤ アヤ オヨ オヨ

[오요 우유 와이]
[o jo u ju wi]
오요 우유 으이
オヨ ウユ ウイ

[クデ ソンカラギ ハングル 스미쥔 나뉨]
[ku²de son²karagi hangul ²sumj^{un} nanuⁿ]
그대 손가락이 한글 쓰면 나는
君の 指が ハングルの書けば ぼくは

[오누세 나드 몰레 룰룰랄라]
[onu^{se} nado molle rulluralla]
어느새 나도 몰래 룰룰랄라
いつしか 知らぬ間に ルンルン

- 손가락 指
- - 이 ...가
- 쓰는書く, 쓰다(書く)의連体形
- 밤 夜
- - 엔 = - 에는 ...には
- 내 ぼくの, 私の
- 한구석 片隅
- 쓰면書けば, 쓰다書く, -면...すれば
- 나 ぼく, 私
- -는...は
- 어느새 いつの間にか
- 나도 몰래 ぼくも知らないうちに, 自分でもわからず,

「그대, 바람 속에 君, 風の中に」挿入曲

바람 속에 꽃잎은 날아

風の中に花びらは舞い

♩ = 100

찬 란 한 이 기 뽀 속 으 로 그 아
찬 란 한 별 - 빛 속 으 로 아
대 향 기 가 와 닿 는 순간 너 의 미 소 내 마 음
무 생 각 도 떠 오 르 지 않 아 내 앞 에 는 그 대 눈
을 흔 들 어 내 맘 흔 들 어 꽃 잎 이 날 아
빛 살 며 시 내 게 다 가 와 꽃 잎 이 날 아
시 간 은 멈 추 고 이 바 람 만 이 오 랜 지 빛
하 늘 이 되 어 온 세 상 을 감 싸 구 름 되 어
저 녁 노 을 이 깃 들 어 하 염 없 이
속 삭 이 듯 피 어 올라 가 밤 하 늘 에
1. 꽃 잎 은 날 아 새 하 나
별 이 돼 빛 나
2. 난 바 람 속 으 로 바 람 속 으 로

바람 속에 꽃잎은 날아

작사 : 조수아, 김진아
작詞 : 초·스아, 키ム·지나
작곡 : 조수아
作詞 : 초·스아

[찰란한 이 기쁨 속으로]
찬란한 이 기쁨 속으로
燦爛たるこの歓びの中へ

[세 하얀 별빛 속으로]
새하얀 별빛 속으로
真っ白な星の光の中へ

[크 데 뢰안 기 가 와 단스 순간]
그대 향기가 와 닿는 순간
君の香りが触れ来る瞬間

[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]
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
どんな思いも浮かばず

[너의 미소]
너의 미소
君の微笑み

[내 앞에는]
내 앞에는
私の前には

[내 마음을 흔들어 내 맘 흔들어]
내 마음을 흔들어 내 맘 흔들어
我が心 震わせ震わせ

[그대 눈빛 살며시 내게 다가와]
그대 눈빛 살며시 내게 다가와
君の眼の光り そっと近寄って

[꽃잎이 날아]
꽃잎이 날아
花びらが舞い

[꽃잎이 날아]
꽃잎이 날아
花びらが舞い

[시간은 멈추고 이 바람만이]
시간은 멈추고 이 바람만이
時間は止まりこの風だけが

[하늘이 되어 온 세상을 감싸]
하늘이 되어 온 세상을 감싸
空となってこの世を抱き

[오렌지 빛 저녁 노을이 깃들여]
오렌지 빛 저녁 노을이 깃들여
オレンジ色の夕焼けが宿り

[구름 되어 속삭이듯 피어 올라가]
구름 되어 속삭이듯 피어 올라가
雲となってささやくように咲き立ち

[하염없이 꽃잎은 날아]
하염없이 꽃잎은 날아
とめどなく花びら流れ

[밤하늘에 별이 돼 빛나]
밤하늘에 별이 돼 빛나
夜空の星となり輝き

[난 바람 속으로]
난 바람 속으로
私は風の中へ

[바람 속으로]
바람 속으로
風の中へ

[2]

[クデ ナワ ハムケ ハングル リンヌン アチム]
[kude nawa ham^ʔke hangul innun at^him]
그대 나와 함께 한글 읽는 아침
君 ぼくと 共に ハングル 読む 朝

[ヘッサレ サンクマミ サップン사ப்பண்]
[he^ʔsare saŋk^hum(h)ami sa^ʔpunsa^ʔpun]
햇살의 상큼함이 사뿐사뿐
日の光の さわやかさが そっとそっと

[カ ナ ダ ラ マ バ サ ア ジャチャ カ タ パ ハ]
[kana da ra ma ba sa a dʒa tʃa k^ha t^ha p^ha ha]
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
カ ナ ダ ラ マ バ サ ア ジャチャ カ タ パ ハ

[ネ マウム トウドウンシル トוגन्दوغन्]
[ne mauum tuduŋsil tugundugun]
내 마음 두둥실 두근두근
ぼくの気持ち ほんわか ドキドキ

[アヤ アヤ オヨ オヨ]
[aja aja ojo ojo]
아야 아야 어여 어여
アヤ アヤ オヨ オヨ

[オヨ ウユ ウイ]
[ojo uju ui]
오요 우유 으이
オヨ ウユ ウイ

[スルプム ハン パンウ리 ハング 루ムヌン ハヌル]
[sulp^hum han baŋuri hangul rumnun hanul]
슬픔 한 방울이 한글 읊는 하늘
悲しみの ひとしずくが ハングルを詠む 空

[クルミ セギョ ジュヌン サ란 サ란]
[kurumi segjo dʒunnun saraj saraj]
구름이 새겨 주는 사랑 사랑
雲が 刻んでくれる 愛 愛

- - 와 ...と
- 함께 共に.
- 읽는 읽다 (読む) の連体形
- 아침 朝
- 햇살 日の光
- - 의 ...の
- 상큼함 さわやかさ
- 사뿐 そっと
- 슬픔 悲しみ
- 한 ひとつの
- 방울 しずく
- 읊는 읊다 (詠む) の連体形
- 구름 雲
- 새겨 刻んで. 辞書形は 새기다 (刻む, 掘る)
- 주는 주다 (くれる) の連体形